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호 【루게 제24809호】 주체104(2015)년 1월 31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된 원산구두공장을 현지도하시였다

근로자들의 로동조건과 생활환경을 잘 보장해주는 것이 생산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하시며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은혜로운 사랑속에서 원산구두공장이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 한 근로자들의 궁전으로 완전히 일신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원산구두공장을 현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한광상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공장개건공사에 참가한 해당 부문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7월 공장을 현지도하시면서 근로자들의 로동조건과 생활환경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주어야 신발생산의 량과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을 현대적으로 개건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강력한 건설력량을 파견해주셨으며 설계와 시공, 자재보장에 이르기까지 공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직접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높은 뜻을 현실로 꽃피울 불타는 열의를 안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건설자들은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열한 전투를 벌임으로써 불과 5개월 남짓한 사이에 개건공사를 끝내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몰라보게 변모되였다고, 생산건물들과 주변환경이



깨끗하다고, 정말 멋있다고, 걸만 보고서도 마음이 흥그러워진다고 하시면서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새 세기의 요구에 비추어볼 때 너무도 뒤떨어진 공장을 돌아보고 가슴이 아팠는데 정말 마음이 개운하다고, 이것이 바로 천지개벽이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명도의 자옥을 새기신 원산구두공장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이 꾸려놓고보니 위대한 장군님께 이렇게 회한하게 개건된 공장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아픔이 가슴을 허빈다고, 장군님께서 이곳을 돌아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

는가고 뜨겁게 되뇌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미 있던 공장들을 현대화하는것은 한평생 근로자들의 로동조건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늘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풀어드리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도덕의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 구내에 건립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표식비와 새로 꾸린 연혁 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혁 소개실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명도비에 공장이 어떤 발전과정을 걸어

왔고 그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은 무엇인가 하는것을 생동하면서도 교양적의의가 있게 잘 꾸렸다고 칭찬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혁을 통한 교양을 5대교양사업과 함께 실속 있게 벌림으로써 근로자들이 자기 일터에 깃든 당과 수령의 명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 높은 긍지와 영예감을 안고 일을 잘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출작업반, 감피직장, 제화직장을 비롯한 생산공정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개건 및 경영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건축미학사상의 요구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생산건물들을 완전히 때 벗어 하였을뿐 아니라 문화후생시설들을 새로 일떠세움으로써 공장 로동조건과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일신시켰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영활동의 정보화,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결과 로력과 자재, 원가를 절약하면서도 생산량을 늘이고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고 하시였다.

신발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의도대로 각계각층의 요구대기호에 맞는 여러가지 질 좋은 구두들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지휘와 경영활동을 짜고들고있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구두의 무게도 몸소 계량해보시면서 신발을 경량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서도 전진을 이룩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회의실, 리발실, 미용실, 목욕실, 식당, 침실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과 야외체육시설들, 휴식터를 잘 건설하였으며 종업원들이 원격교육을 받으며 대학과정을 마칠수 있게 과학기술지식 보급실도 훌륭히 꾸려놓았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구두공장을 우리 나라 신발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시킨데 맞게 공장에서는 질 좋고 맵시있는 구두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된 원산구두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번 에서 계속
특히 질제고사업을 기본으로 틀어
쥐고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매봉산>
상표를 단 공장제품이 소문이 나게
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개건한 원산구두공장의 전경을 보고 또
보시면서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공장,

안쪽으로 흡잡을데가 없는 만점자리 공
장이라고 하시면서 종업원들이 공장을
로동자들의 궁전이라고 부르는데 그럴
만하다고 기뻐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공업부문을 비롯한
해당 단위의 일군들을 참관시켜 당이
바라는 현대화가 어떤것인가를 실물로
보게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

구두공장을 개건한것은 단순히 이
공장 하나만 현대적으로 꾸리자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경공업
공장들을 원산구두공장처럼 전변시키
기 위해서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방대한
개건공사를 당이 바라는 기준대로
최상의 수준에서 결사관철한 김창룡
동무가 사업하는 건설사업소의 일군

들과 건설자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시간을 내어 꼭 기념사진
도 찍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하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원산구두공장을 개건한 다음 다시
찾아와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신 사랑
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공장의 종업원
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원산구두공장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
원들은 공장을 로동자들의 궁전으로
일떠세워주시였으며 또다시 일터를 찾아
주시고 대해같은 은덕과 귀중한 가르치심
을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
없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기어이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적해상목표에 대한 군종타격훈련을 조직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따라 적해상목표에 대한 군종타격훈련이 진행되였다.

불구대천의 원수 미제를 혁명의 총검으로 영영 쓸어버릴 총결사전을 위한 전투력강화의 불길기 전군에 화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또다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바다바람세찬 훈련장에 모시고 직접적인 지도와 가르치심을 받으며 적해상목표에 대한 군종타격훈련을 진행하게 된 항공 및 반항공군 전투비행련대들과 해군 잠수함련합부대장병들의 가슴가슴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을 위함이라면 죽음도 불사할 불굴의 신념과 총장의 열정으로 불도가니마냥 달아올랐다.

바다의 섬이라고 자칭하던 미제침략군 중순양함 《블리모》호를 통쾌히 바다속깊이 수장해버리고 공중전투들마다에서 맞대는 미제공중비적들을 진창속의 락엽신세로 만들어버리던 자랑찬 군종부대들의 승리의 전통을 이어 명령만 내리면 백년속적 날강도 미제와 그 주구들이 정신차릴새없는 무자비한 타격으로 뼈다귀도 추리지 못하게 목사발을 만들어버리고 오만방자하고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땅바닥에 구겨박을 백두산



전법을 완성하고 전투비행대와 잠수함부대들의 전투조법과 지휘 및 협동을 숙련시키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적항공모함을 가상한 섬에 대한 군종타격진행순차와 방법을 료해하시고 먼저 근위항공사단과 련대들에 전투출동명령을 하달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투출동명령을 받아안은 근위부대 하늘초병들은 신성한 우리의 령토와 령공, 령해를 넘보는 침략의 해적선무리를 맞받아 대지를 박차고 신속히 조국수호의 하늘길에 올랐다.

미제침략군 항공모함을 엄호하는 각종 적함선들의 반항공망을 가상하여 항공 및 반항공군의 여러 기종의 전과탐지기구분대들이 가적으로 행동하며 아군추격기편대의 습격항로를 포착하기 위하여 하늘과 바다를 살살이 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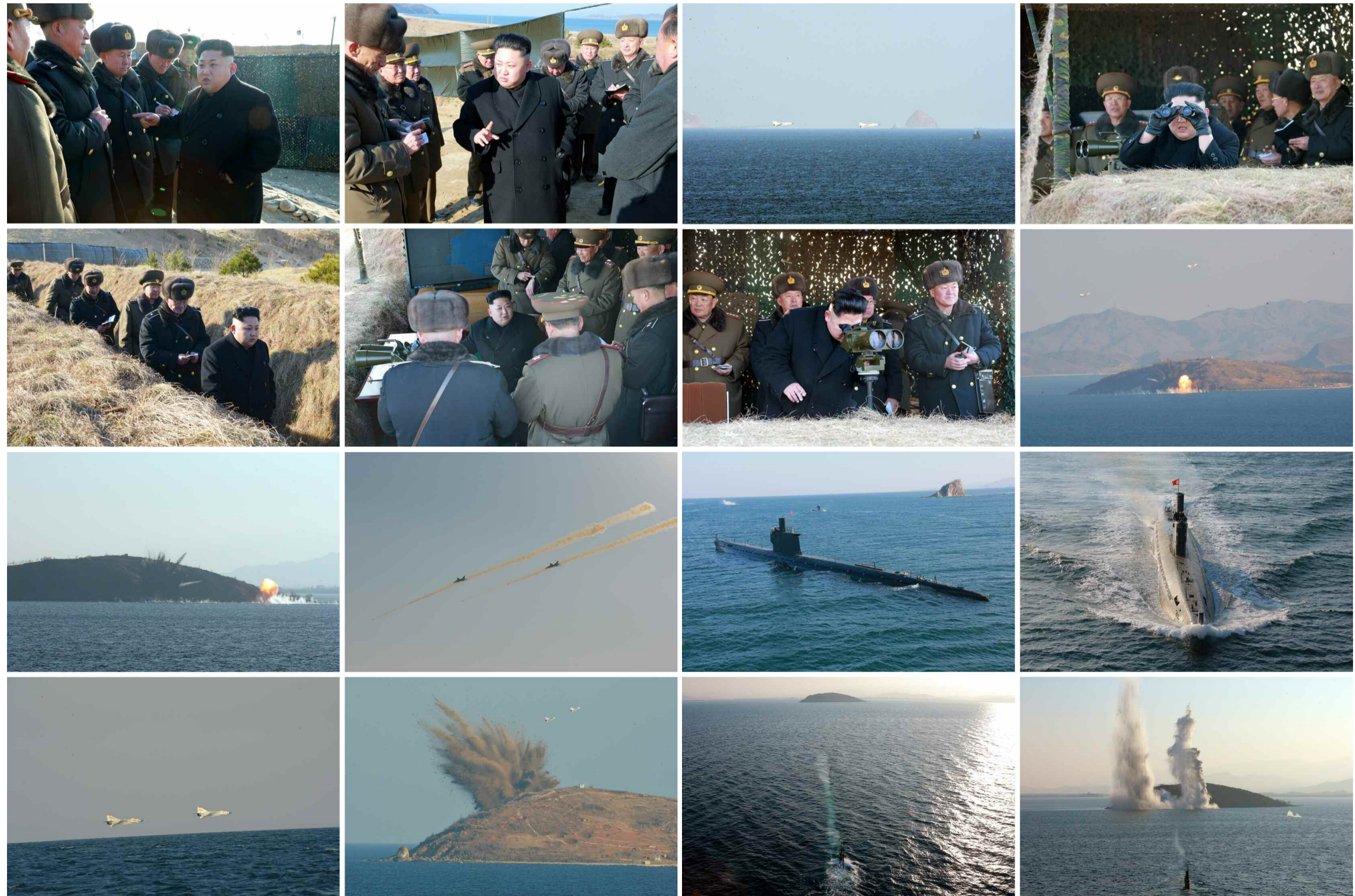
영웅한 우리의 전투비행사들은 초저공으로 바다우를 스칠듯 날으며 그물같이 촘촘한 《적》의 반항공망을 과감히 뚫고 적항공모함으로 접근하여 적들이 손쓸 사이없이 도약습격기동을 진행하였다.

4 번 으 로 계 속

혁명강군의 멸적의 기상이 훈련장을 진감하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황병서동지, 현영철동지, 리영길동지, 김영철동지, 리병철동지와 함께 타격훈련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훈련장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인 항공군상장 최영호동지와 정치위원인 항공군중장 손철주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인 해군중장 리용주동지, 조선인민군 해군 정치위원인 해군중장

히영춘동지, 조선인민군 해군 동태함대장인 해군소장 진철수동지가 맞이하였다. 훈련은 우리 나라의 전략적대상들에 대한 군사적타격을 기도하며 남반부작전수역에 기여는 미제의 항공모함을 공중과 수중에서 기습돌격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적해상목표에 대한 군종타격훈련을 조직지도하시였다



3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투비행사들의 조차공비행과 도약에 의한 습격기동을 보시며 정말 잘 나오, 마치 우리 조국의 국조인 참매를 방불케 하오라고 하시며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전투비행사들은 적항공모함의 중추 요소들에 대하여 불의적이며 연속적인 타격을 틀어막아 적항공모함타격단이 작전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전투리탈 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러 잠수함련합부대들이 비행대타격에 얻어맞고 열이 나간 놈들에게 수중매부구역에서 연속적인 어뢰공격을 들이쳤다.

적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총을 내들면 대포를 내대며 원수들의 도발책동을 무자비한 대응타격으로 짓뭇개버리시는

혁명적신념과 배짱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닮은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무적필승의 기상을 만천하에 떨친 적해상목표에 대한 군종타격훈련은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공중 및 수중전법의 요구대로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훈련은 미제가 새 전장도발의 도화선에 불을 달고 방대한 침략무력을 끌고 조선반도부근 작전수역에 기여들기만 하면 적항공모함과 함재기들은 물론 우리가 마음먹은 적의 모든 목표가 무자비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미제침략군 항공모함타격단에 대한 군종타격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적의 허점을 잘 알고 빨찌산식전법으로 적의 중추를 호되게 답새기기 위한 전법을 부단히 연구완성한다면 항공

모함도 얼마든지 수장해버릴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군종부대들의 작전능력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적들이 저들의 첨단군사과학기술에 대하여 으시 대고있지만 군사력대비에서 순수 과학기술적평가만을 우선시할수 없으며 적과의 싸움은 결코 무장장비의 대결, 물리적힘의 대결만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력, 사상의 대결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것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는 우리의 정의 조국통일대전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미해군력사에 수치스러운 한계지를 우리 세대가 또 한번 써주자고 하시면서 미제가 아직까지 맛보지 못한 무서운 공포와 전율, 쓰디쓴 참예를 우리와의 전쟁을 통하여 저들의 땅덩어리에서 맛보게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전체주의>요 뭐요 하면서 곁고들고 우리 인민이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는 삶의 더전한 사회주의제도를 그 무슨 <변화>의 방법으로 붕괴시킬것이라고 공공연히 짚어대는 미친개들과는 더는 마주앉을 용의가 없다고 단호히 공언하시고 우리는 미제가 원하고 력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 작전, 전투에도 대응해줄수 있으며 상용무력에 의한 전쟁, 핵전쟁을 포함한 그 어떤 전쟁에도 대응할 만단의 준비가 다되어있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적해상목표에 대한 군종타격훈련에 참가한 항공 및 반항공군 전투비행련대들과 해군 잠수함련합부대 장병들은 미제가 여기저

기 끌고 다니며 요란하게 저들의 군사적 위력을 뽐내는 최신형항공모함들이 한갓 욱실하고 비대한 변태동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천재적인 군사적예지와 명군술로 군건설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는 한 어떠한 신행무장장비도 우리 군대를 놀래울수 없다는 드높은 신심에 넘쳐있었다.

침략과 도발의 원흉, 흉악한 강도의 무리 미제가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0.001mm라도 침해하고 건드린다면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가장 무서운 참변을 악의 총본산인 미국본토에서 당하게 될것이며 세계는 빈말을 모르는 백두산총대가 무섭게 분출하는 용암속에서 미제의 성조기가 어떻게 타 버리며 비참한 종말을 고하는지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하 노 이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원 푸 쯡 동 지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외교관계설정 65돐(1950년 1월 31일-2015년 1월 31일)에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와 축원이 담긴 축전을 보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월남공산당과 친선적인 월남인민에게 진심으로 되는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월남인민의 경애하는 호志明동지께서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국제주의에 기초하여 마련하여 주신 조선과 월남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는 지난 65년간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의 한길에서 끊임없이 공고발전되어 왔습니다.

나는 우리 두 당, 두 나라, 두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선대수령들의 뜻과 념원에 맞게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되리라 확신하면서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월남공산당의 령도밑에 호志明동지의 유훈대로 부강한 월남을 건설하기 위한 월남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건강할것과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로동당 제 1 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 1 위원장

김 정 은

주제104(2015)년 1월 31일

평 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 양

조선로동당 제 1 비서

김 정 은 동 지

나는 월남과 조선사이의 외교관계설정 65돐(1950년 1월 31일-2015년 1월 31일)에 즈음하여 당신께와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조선로동당과 전체 조선인민에게 월남당과 국가, 인민의 열렬한 축하와 친선적인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월남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호志明동지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마련하여주시고 가꾸어주시신 월남공산당과 조선로동당 그리고 월남사회주의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지난 65년간 끊임없이 공고발전되어온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나는 우리 두 당,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지난 65년간 이룩된 빛나는 성과들을 계승하여 쌍방의 공동의 노력으로 두 나라 인민의 리익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협조와 발전을 위하여 힘있고 효과있게 그리고 심도있게 발전하리라 확신합니다.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김일성동지와 김정일총비서동지의 유훈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 사회주의 건설위업과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합니다.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원 푸 쯡

2015년 1월 31일

하 노 이

